

일본 경제산업성, 9개국과 저탄소사업 협정 체결 예정

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15건의 저탄소형 사업에 대해 동남아 등의 9개국과 양자간 협정을 체결할 예정. 향후 일본에서는 ‘인프라수출+지구온난화대책’ 형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5건의 저탄소형 사업에 대해 동남아 등 9개국과 각각 2국간 협정을 체결할 예정
 - 15건의 저탄소형 사업은 고효율 석탄화력발전, 지열발전, 송전망 효율화, 폐열 활용, 공장 및 주택의 에너지절약, 삼림보전 등에 관련됐는바, 이러한 사업은 지구온난화대책(온실가스 감축)에 연계됨.
 - 9개국은 인도네시아·베트남·인도·필리핀·태국·라오스·미얀마·중국·페루이며, 주로 동남아 국가와 협정을 체결함.
- 일본정부는 양국간 협정을 통해 첫째, 자국기업의 해외 인프라수출 지원, 둘째 개도국에서의 배출권 획득을 통한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림.
 - 이러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가능하게 된 것은 2009년 12월 ‘코펜하겐합의’에 따라 양국간 합의만으로도 배출권 획득(2국간 읍셋 메커니즘)이 가능해졌기 때문임.

〈표〉 경제산업성이 선정한 주요 저탄소형 사업

대상국	주요 민간사업 주체	사업내용	온난화가스 감축량(연간)
인도네시아	J파워	고효율 석탄화력발전	50만 톤
	미쓰비시상사	지열발전	8만 톤
베트남	도쿄전력·마루베니	고효율 석탄화력발전	50만 톤
	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	송전망 효율화	2,500 톤
인도	미즈호총연·도호쿠전력	고효율 석탄화력발전	50만 톤
	신닛폰제철	철강플랜트의 폐열	20만 톤
필리핀	도시바	지열발전	35만 톤
	JFE스틸	철강플랜트의 폐열	5만 톤
태국	요코가와전기	공장에너지절약	5만 톤
라오스·미얀마	태평양엔지니어링	시멘트공장의 에너지절약	10만 톤
중국	노무라총연	에너지절약주택	1,700 톤
페루	미쓰비시상사	삼림보전	수백만 톤

주: 15개 사업이 모두 실용화될 경우 연간 500~1,000만 톤의 감축효과 발생

자료: 日本經濟新聞(2010. 8. 8)

□ 일본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「신성장전략」을 통해 전세계의 높은 인프라 수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확히 밝혔는바, 향후 ‘인프라수출+지구온난화대책’ 형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

- 경제산업성은 민간기업이 제안한 해외에서의 온난화대책사업(32건) 가운데 이번에 1차로 15건을 채택했는데, 8월 하순에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여타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뒤이을 전망
- 또한, 경제산업성은 ‘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25% 감축 목표’에 대해 향후 ‘2국간 읍셋 메커니즘’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

〈참고자료〉

日本經濟新聞(2010.8.8), 朝日新聞(2010.8.10)

經濟産業省홈페이지